

엄마, 추석이 뭐예요?

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"한"이라는 말은 "크다"라는 뜻이고 "가위"라는 말은 "가운데"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즉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다. 추석이 되면 한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들 때이며 추석 무렵에는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며 온갖 과일이 풍성하다.

추석 때쯤이면 농사일도 거의 끝나 갈 무렵이고 남쪽에서는 햇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 풍년을 넉넉하게 즐길 수 있으며 과일도 풍성하고 덩고 चु슴지도 않아 즐길 만하다.

객지에 있던 식구들도 다 고향에 모인다. 온 식구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. 막혔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고 아이들이 가족 전체를 상봉하며 가풍을 익히는 계기이기도 하다. 이때는 무엇보다 오곡이 풍성하므로 다양한 음식이 시절에 맞게 나온다. 추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지켜 온 우리의 큰 명절로 일 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, 이웃들과 서로 나눠 먹으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다. 새로 나온 과일과 곡식으로 차례 상을 차려 드려 한 해에 거둬들인 것을 보고 드리고 아침을 먹은 후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하러갔다.

우리의 명절인 추석은 즐겁고 신나는 날인 동시에 그런 즐거움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은 날이기도 하다.

